

# “전남 아파트 경비·미화원 저임금·고용불안”

## 휴게시설 등 복지환경 열악·입주민 사적지시 잦아 도 비정규직노동센터, 100곳 근로조건 실태 조사

전남지역 아파트 경비·청소 근로자들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전남도 비정규직노동센터에 따르면 센터가 전남 22개 시군의 100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경비원과 미화원의 근로환경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근무시간에 비해 임금이 너무 적고 매년 근로계약을 해야 해 고용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또 휴게 공간 등 복지환경이 열악하고, 경비·청소 업무 외에 입주민들이 사적 지시와 갑질 등이 힘들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전남지역 아파트 경비 근로자는 100% 남성이었고, 연령대는 60대(64.1%)와 70대(26.2%)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20~50대는 5.6%에 불과했다. 근무 형태는 격일제가 가장 많았고, 대다수가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금수준은 평균 162만원으로 조사됐다. 150만~180만원이 66.2%, 130만~150만원이 17.9%였다. 이들이 희망하는 임금은 180만원 이상이였다.

이들은 근로특성상 야간에 취직해야 하는데 “수면공간이 없다”고 호소했다. 일부 경비원은 경비실 바닥에서 잠을 자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민의 부당한 간섭이나 업무 지시 등 갑질도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입주민들이 인건적으로 대우하느냐는 질문에 68%

정답이 68%였지만, 나머지 30%가량은 이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원과 달리 청소 근로자는 93.9%가 여성이었고, 60대(56.4%)와 50대(23.8%)가 대다수였다. 주 6일, 하루 6~7시간 일하며 임금은 평균 114만원이었다. 고용 형태는 위탁관리업체 계약직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휴가는 보장돼 있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근로자가 업무를 대신해야 하는 탓에 경조사나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성상 근무장소가 실외여서 여름엔 더위, 겨울엔 추위에 노출된 채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휴게공간과 냉난방시설이 필수적인데 대부분 지하실인데다 냉난방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월수 관리 등 업무의 잡무

를 많이 하고 입주민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센터는 아파트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저임금과 고용불안, 휴게시설 확충, 입주민과의 관계 등을 꼽았다.

센터는 개선 방안으로 저임금의 경우 전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고용도 위탁업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권했다. 휴게시설 확충은 비용 등의 문제로 아파트 자체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제했다. 입주민들의 갑질 문제는 경비원과 청소원을 반상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시키면 상호 이해와 소통이 이뤄져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세계 굴지 배터리 제조 초우그룹 市와 협력 광주 전기자동차산업 활기 떨 듯

세계 굴지의 배터리 제조 기업인 초우 그룹 양신진 총재가 광주시와의 협력의사를 밝히면서 광주의 전기자동차 산업이 활기를 띠 전망이다. 중국 조이통자동차와의 투자협약, 유럽 최고 자동차 연구기관 호리바 마이와와의 상생협력 업무협약 등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연구기관들과 광주시와의 협력이 이어지면서 관련 산업의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

양정현 광주시장은 16일 오후 서울 더플라자호텔 5층 비즈니스센터에서 양신진 총재를 만나 광주시와 초우그룹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문국현 뉴페러다임 인스티튜트 회장이 함께 했다.

양신진 총재는 “광주가 가고자 하는 친환경자동차산업, 에너지산업, 스마트시티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광주시와의 기술·창업 협력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기자동차 부문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상호 투자와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광주에 R&D센터를 설립할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 총재는 “광주의 세방전지와도 기술과 생산을 함께 하자는데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시장은 “광주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조립했고, 기아차와 284개사에 이르는 부품 협력업체들이 입지한 자동차 도시”라며 “친환경자동차와 에너지, 문화콘텐츠산업 등 3대 밸리를 미래를 열어갈 핵심사업으로 야심차게 준비해가고 있다”고 화답했다. 지난 1998년에 설립돼 중국 질강성에 본사를 둔 초우그룹은 전기자동차, 오토바이, 자동차 배터리 및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저장 배터리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중국 내 1위, 세계 4위의 배터리 제조 기업이다. /\*윤현석기자 chadod@

## 전남도, 영광 대마산단에

### ‘e-모빌리티 연구센터’ 개소

전남도는 16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e-모빌리티 연구센터’가 영광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서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e-모빌리티는 마이크로 모빌리티(3·4륜 초소형 차량), 전기이륜차, 세그웨이 등 전기구동운송수단으로 거대도시화, 사회고령화 등 급변하는 미래사회 교통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미래 이동수단이다.

이날 문을 연 e-모빌리티 연구센터는 산업부의 국책사업으로, 전남도·영광군·자동차부품연구원 등이 공동 추진한 779억원 규모의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중 하나다. 부지 7만6000㎡에 건축 3개 동 총 5100㎡, 실내 평가 장비 26종, 실외 8종, 성능 시험장, 산학 공동연구소 등을 갖췄다.

오는 12월에는 5만1000㎡ 규모의 e-모빌리티 전용 실외환경 평가시설이 연구센터 바로 옆 부지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e-모빌리티의 연구·시험·인증 및 관련 기업 지원, 인력 양성을 하는 국내 유일의 e-모빌리티 연구기관으로 우뚝 서게 된다. 국내 자동차 부품의 시험, 인증, 검사 분야 대표 연구기관인 자동차 부품연구원에서 운영한다. 이를 위해 25명의 전문 연구인력이 상주하고, 관련 기업이 입주해 공동 연구활동을 한다.

전남도는 그동안 미래 자동차산업으로 떠오르는 e-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해 영광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에 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사업을 중점 추진해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총회가 16일 오후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 국회·정부에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채택

### 어제 울산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총회

광주지역 구청장과 전남지역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총회가 16일 오후 경남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민선 6기 4차연도를 맞아 ‘지방을 살리자! 지방분권개헌’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과 송광운 북구청장, 유근기 곡성군수 등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7명을 비롯해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 중 110곳의 단체장이 참석했다.

총회는 개최식, 지방자치 대상 시상, 지방분권개헌 관련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

내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강연, 본회의, 만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협의회는 이날 그동안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지방분권형 개헌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 제1조에 천명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에 규정 ▲국가와 지방정부 간 업무 배분은 보충성 원리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해 지방 4대 협의회(대한민국도시지사협의

회, 전국시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회의의 장협의회)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국 22개 시·군·구로 구성된 협의회는 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고자 설립된 단체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은 “이번 총회는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여야 정당 대표를 초청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발전을 위한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연합뉴스

## 호남대 쌍촌캠퍼스 아파트 건립 ‘공공기여제’ 첫 적용

광주시 서구 호남대 쌍촌캠퍼스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 전국 처음으로 ‘공공기여제’로 추진된다. ‘쌍촌캠퍼스 부지 일부를 공적 개발을 위해 내놓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광주시의 공공기여제 제안을 최근 호남대 측이 받아들였다.

광주시는 16일 “학교법인 성인학원이 지난 8일 공공기여제를 기반으로 한 ‘호남대 쌍촌캠퍼스 도시계획변경안’을 받아들인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여제는 공원과 도로 등 지자체가 필요한 공공시설을 협상을 통해 기여받고 개발을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3월 대규모 유희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 민·관 사전 협상을 통해 공공성을 높이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지침’을 제도화했고, 이번 호남대 쌍촌캠퍼스 개발이 첫 적용 사례가 됐다.

이에 따라 호남대 쌍촌캠퍼스는 학교 시설 부지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2중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광주시는 사업부지 면적의 20% 이내의 땅값에 해당하는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현재 땅값을 고려하면 학교 측이 부담할 기여액이 2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전남도, 순천시·강진군 부적정행위 무더기 적발

근무성적평가 조작, 공사계약-인허가 위반 등 순천시와 강진군의 부적정 행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도는 순천시와 강진군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89건(순천시 56건, 강진군 33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 시정·주의조치 했다.

순천 모 영농조합법인인 농산물 가공시설 신축공사를 모 하우징과 1억원(보조금 5000만원)에 계약한 뒤 공사업체에게 자부담금 4700만원을 대납하게 해 235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 법인은 보조시설인 농산물 가공시설에 대해 순천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순천 모 금고에 7800만원의 담보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도는 이 법인 대표를

사업당국에 고발조치하라고 순천시에 요구했다. 순천시는 201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가에서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규칙을 어기고 5명 명부를 협의 없이 변경했다. 7급으로 11년 이상 재직하는 인원의 30% 범위에서만 6급으로 승진시켜야 하는데도 직급 근무기간 11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을 승진시키기도 했다.

강진군은 2014년 이후 85명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33명은 비공개로 채용했으며 23명은 서류전형도 거치지 않았다.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 서 직무 분석이나 개인별 종합평가 없이 2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임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후원 | KORAIL 광주본부 SR

| 본 상품은 우수해양관광상품공모전에 선정된 상품입니다 |

# 전복과 함께하는 땅끝마을·슬로시티 청산도여행 1박2일

### 1일차

- ▶ 용산역(07:20) / 광명역(07:40) 도착 후 KTX 탑승
- ▶ 수서역(07:10) / 지제역(07:30) 집결 후 SRT 탑승
- ▶ 용산역(07:49) / 광명역(08:04) / 수서역(07:40) / 지제역(07:59) 출발
- ▶ **광주승정역 도착 후 출발(09:37)**
- ▶ 송호마을 도착 후 중식(12:00)
- ▶ 송호리해수욕장, 전복 양식장 견학(12:40)
- ▶ 송호마을 출발(15:00)
- ▶ 대한민국 국토 최남단 위치한 해남 땅끝마을 관광
- ▶ 땅끝 모노레일이용시 개별부담입니다.
- ▶ 땅끝마을 출발(16:30)
- ▶ 숙소 도착 후 배정 및 자유석식(17:00)

※교통편: KTX or SRT 전동차 / 중식만 제공

### 2일차

- ▶ 조식 후 출발(07:00)
- ▶ 완도여객선터미널 도착(08:30)
- ▶ 완도여객선터미널 출발(09:00)
- ▶ 슬로시티 청산도 도착 후 관광·서편제, 봉의왈츠 세트장(09:40)
- ▶ 청산도 자유중식 후 출발(13:00)
- ▶ 완도여객선터미널 도착(13:40)
- ▶ 다산초당·백련사 도착 후 관광(15:00)
- ▶ 백련사 출발(17:00)
- ▶ 광주승정역광장 도착 후 송정 1913시장 관광 및 자유 석식(18:00)
- ▶ 광주승정역(KTX-19:39 or SRT-19:39) 출발(19:24)
- ▶ 광명역(20:54) / 용산역(21:10) / 지제역(21:05) / 수서역(21:32) 도착

※교통편: KTX or SRT 전동차 / 조식만 제공

출발역	성인			소인
	2인실	3인실	4인실 이상	
용산역·수서역	250,000	245,000	240,000	190,000
광명역·지제역	245,000	240,000	235,000	185,000
광주승정역	160,000	155,000	150,000	140,000

**참고사항**

- 최소출발인원: 10명 이상 출발 조건
- 포함사항: 왕복 KTX 열차비, 차량비, 숙박비, 1일째 중식 2일째 조식, 양식장 현장견학비
- 불포함사항: 여행보험, 일정포함 식사3회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의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보관이 불가능하므로 여행사에서는 여행상품 운영시 여행자보험에 대해 가입할 수 없이 개인이 직접 여행사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연계버스는 출발인원에 따라서 차종이 변경됩니다. (승합차/중형차/대형차)
- 상품별 최소 출발인원이 부족시 행사가 취소될 수 있으며, 최소 출발 4일전에 연락드립니다.
- 취소 환불규정: 여행출발 3일전 취소시 80% 환불, 2일전 취소시 50% 환불, 1일~당일 환불불가
- 홈페이지 접수: www.daewontour.com(대원여행사)

계좌번호: 농협 301-526-7000-191 (주)대원여행사

해외여행·국내여행·할인항공권·KTX기차표·허니문·단체여행·골프투어·기차여행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76 자승빌딩 1층 (현대자동차빌딩 옆) | 메일: daewonkr@hanmail.net  
 Tel. 062)526-7000 H. 010-9715-1000 www.daewontour.com